

# “ 나 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가 있다면? ”

## ■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자기 홀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좋지 않다. 심지어 아내를 독점하겠다는 이마저도 현대적이지 못한 이기주의자라는 비웃음을 당하는 터에 기업을 독점하려는 재벌이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흔들겠다는 독재자는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런 독점의식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에도 큰 독소가 되고 있다. 어느 목사님이나 성도가 이 교회는 내가 피땀 흘려 세웠고 가꿔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사랑 운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침범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이들을 경쟁 대상 또는 적군으로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몰아내려는 정신 빠진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텃세 정도가 아니고 교회 독점욕이 발동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의 아성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자칭 애국자들 즉 여당, 야당, 군인들, 공무원, 기업인, 운동권 학생 등 모두가 자기들만 진정한 애국자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나라가 누구를 참애인으로 맞아야 할지 난감한 형편이다. 그러나 다른 독점과 같이 애국의 독점이나 교회 사랑의 독점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기만 나라와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애국자요 신자라면 다른 애국자나 신자 모두 가짜라는 말이고 자기 방식대로 나라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고 하나님 사랑이라 하니 이 또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기셨다고 자기 혼자라고 불평하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들 자칭 애국자나 언필칭 하나님 또는 교회 사랑을 자기만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은 나라에도 하나님께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짓 확신 속에 살고 있는 가증한 자라 할 것이다. 애국 독점자나 교회사랑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이들의 정신구조를 분석해 볼 필요도 없이 이들의 나라사랑이나 교회사랑은 결국 자기 이익이나 자기 이상을 사랑하며 나라나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어내려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로 일하신 분들이 선임자나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공식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나라 사랑하여 장관으로 일을 했는지 묻고 싶었다. 국가 이익보다 자기 치부나 치적을 세우려 했다면 그는 참애국자가 아니듯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자일 것이고 자기 소욕이나 채우려고 충성 봉사했다면 아무리 큰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했노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국을 독점하려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있지만 권력을 독점하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처럼 사람들 눈에 쉽게 발견된다. 하물며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모르실리 없겠거늘 누가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속임수로 눈가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려운 일이다.

서양 사람들은 매일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받아야 부부간에 안심한다 하지만 한국의 애처가는 조용히 남편의 본분을 성실히 함으로 아내 사랑을 나타낸다. 그런데 애국이나 하나님 사랑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나라와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애국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아내에게 대하듯 좀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깊이 진실 된 마음으로 사랑할 때가 되었다. 나라 사랑은 더 많은 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게 해야 하듯 교회 사랑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애국독점, 교회사랑은 나 홀로만이라는 환상을 먼저 버리는 것이 참사랑의 시작이다.

-한국장로신문 2013년 5월 11일 발췌-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하반기를 새로 시작하는 7월 첫번째 주, 맥추감사주일로 성찬식이 함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며,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703\\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703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영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b>이종윤</b>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b>손달익</b>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맥추절을 지키는 믿음 ”

**■ 레위기 23:9-14**  
 맥추절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마주한 상황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원주민들과 경쟁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경험없는 농사일에 도전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불평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각종 절기를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은혜로 알고 축복으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맥추절은 지키는 절차가 이색적이고 복잡합니다. 먼저 추수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곡식으로 만든 떡과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친 후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했고 밭에 남겨진 곡식을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 몫으로 남겨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서야 맥추절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 1. 첫 이삭을 드려라**  
 성경은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첫 소산을 바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첫 열매, 첫 사건, 첫 자식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되...’(12절) 첫 곡식을 바칠 때 번제물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란 제물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제사였습니다. 맥추절 신앙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의 신앙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도 은혜주시 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맥추절 예배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의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 3:9,10) 처음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 신앙이 견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미래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 2. 헌신하라**  
 맥추절 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고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첫 이삭으로 만든 떡과 화목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을 예배 후에 제사장에게 돌려서 그들의 식물이 되게 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감사드리는 날 제사장들에게도 감사하자는 것은 공직자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자는 의미입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탄이 이루어지자 우리 선배 장로교 지도자들은 1912년에 장로교 총회를 설립하여 대응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조직이 와해되어 백성들을 돌보고 살필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교회는 오히려 전국 조직을 서둘러 만들어내고 목회자들이 어려운 백성 돌보는 일을 자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교역자들도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만든 제도가 성미였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그 양식으로 식사를 하고 전도하고 백성을 살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맥추절 신앙은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 3. 나누어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추수 때 곡식 일부를 남겨두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과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국가제도가 가난한 백성들을 돌볼 수 없던 시절 백성들 스스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자발적 나눔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주신 규정들입니다. 민간 스스로 실천했던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신앙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홀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웃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최선의 나눔을 실천하도록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맥추절 신앙으로 사는 자세입니다. 이런 배려, 섬김, 위로, 격려가 있는 신앙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불러오고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증거되게 하는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섬김의 맥추절 신앙정신을 함께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이계홍 장로
II 오전 11시	전재홍 목사	오치열 장로
III 오후 2시	김익환 목사	김익환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50:14-1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9(1절)...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05(감사절)...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482(4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레 23:9-14...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맥추감사헌금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맥추절을 지키는 믿음”... 손달익 목사  
 성찬식 Holy Communion ..... 말 은 이  
 \* 찬 송 Hymn .....143(14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동수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07:8-9 ..... 인 도 자  
 찬 송 ..... 27 ..... 다 함 께  
 기 도 ..... 박태규 집사  
 찬 송 ..... 83 ..... 다 함 께  
 성 경 ..... 행 27:1-20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실패로 가는 길” ... 설 교 자  
 \* 찬 송 ..... 292(415)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김익환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유묘종 권사 II부: 김연화 권사  
 성 경 ..... 행 27:21-44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구원으로 가는 경로”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화2

설 교 ..... 손달익, 전재홍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모임

1. 에스더 임직원 모임 / 3일(주) 3부 예배 후 802호
2. 정기당회 / 6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402호
3. 3교구 연합다락방 모임 / 8일(금) 오전 11시 웨민홀(101호)

### 알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이번주 심방 일정  
1-11, 4-9, 5-9, 5-11, 6-4, 6-5, 6-8 다락방
13. 맥추감사절 / 7월 첫주(일(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며 맥추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찬예식에서 큰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강선화	1-5	루디아	본인	이민지2	1-5	중등부	본인
이광호1	1-5	베드로	본인	이민우	1-5	유년부	본인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613명	736명	2,349명	390명	2,387명

##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이라 이름하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처음 맺은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켰다. 우리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햇곡식과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농부들의 피땀흘린 수고와 자연의 재앙속에서도 눈물겨운 고투를 해온 국민 모두의 노고를 몰라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그분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빈 손으로 세상에 온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을 믿는 이라면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 못하다 해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반드시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며 나의 실패가 때로는 성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이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과분한 대접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